

보도시점 : 2026. 9. 29.(화) 11:00 이후(9. 30.(수) 조간) / 배포 : 2026. 9. 29.(화)

굴착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바로 확인

- 국토부, 9월 30일부터 ‘지하시설물 간편 조회’ 및 ‘전자파일형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공’서비스 본격 개시
-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 문의 불편 해소, 굴착공사 전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행정절차 대폭 단축

□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·하수도, 가스,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*를 기반으로 ▲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▲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9월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상·하수도, 가스,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·재질 등의 정보를 통합 전산화

□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.

① [대국민 서비스] “전화 돌리기 끝!” 주소 입력으로 지하시설물 원스톱 확인

-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·하수도(관리기관: 지방정부), 가스(관리기관: 가스공사), 통신(관리기관: 통신사)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.
-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(브이월드, www.vworld.kr) 접속 후(회원가입 필요)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.

② [전문가사업자 서비스] 종이도면 벗어나 ‘암호화 전자파일’로 스마트하게 분석

- 기존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 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.
-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(www.jis.go.kr)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.

*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

-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“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,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‘디지털 행정혁신’의 대표 사례”라며,
 - “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	책임자	과 장 조숙현 (044-201-3469)
		담당자	사무관 유병순 (044-201-3474) 주무관 강민성 (044-201-3477)
담당 기관 (조회 서비스)	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SOC처	책임자	처 장 이중재 (044-201-1341)
		담당자	선 임 박창현 (044-201-1347)
담당 기관 (데이터 제공)	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	책임자	센터장 장용구 (031-910-0327)
		담당자	연구원 서민송 (031-910-0407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| TOMORRO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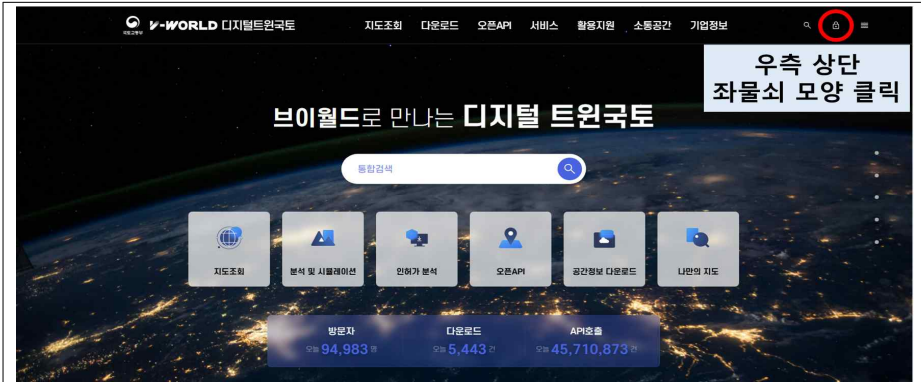
참고

지하시설물 유무 조회 간편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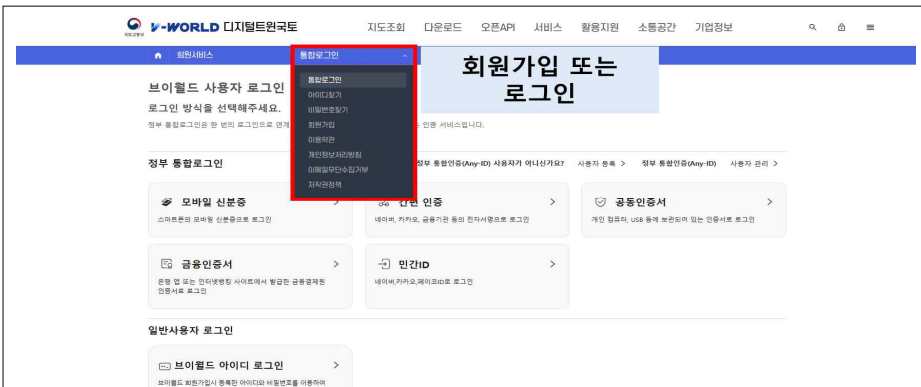
구분

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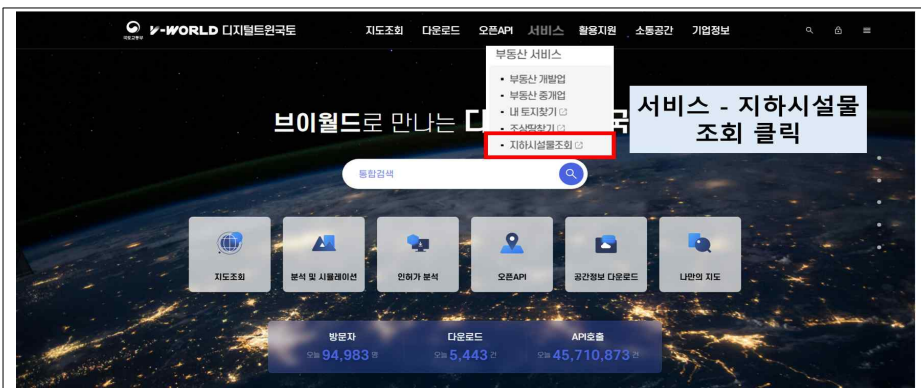
① 브이월드 접속
(www.vworld.kr/
v4po_main.do)



② 회원가입/로그인



③ 서비스 접속
(서비스-지하시설물
조회 클릭)



④ 시설물 유무 조회
(자세한 조회 방법은
도움말 참조)

